

## 연구 · 조사활동

### 1) 외래어표기 통일의 조사연구

1976년 10월 28일에 열린 편협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회 마스크 세미나 참가자 전원의 합의로 제기된 보도용어 통일을 위한 심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 상설기구로서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회를 편협 안에 둘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심의위원은 운영위원이 있는 사(영자지 제외) 발행인에게 추천토록 하고 위원장에 홍유선(洪惟善)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1월 17일 첫 모임을 가진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회는 우선 “외래어표기통일안”부터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위원을 선출했다. 실무위원회는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회장단에 건의키로 했다.

####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회

△위원장=홍유선(洪惟善 본회 부회장)△자문위원=계창호(桂昌鎬 한국일보 편집위원) 박갑천(朴甲千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병호(李秉鎬 문교부 편수관) 이승구(李升九 대한교과서 상임이사) 정재도(鄭在道 조선일보 소년조선 주간)△심의위원=신동백(申東百 경향신문 교정부장) 안태양(安泰陽 동아일보 교열부장) 박용규(朴容珪 서울신문 교정부장) 서강화(徐康和 조선일보 교열부장) 이윤표(李允杓 중앙일보 교정부장) 김

천명(金天明 동양통신 교정부장) 조익규(曹翼奎 합동통신 부국장) 김영무(金英武 국제신보 부국장) 이용호(李瑢浩 충남일보 논설위원 이상 실무위원 겸임) 유창선(柳昶善 신아일보 교정부장) 김관용(金寬鎔 한국일보 교정부장) 안상직(安相直 강원일보 교정부장) 박노철(朴魯哲 충청일보 부국장) 홍종훈(洪鍾埧 매일신문 교정부장) 이홍형(李洪馨 전북신문 논설위원) 김종명(金鍾鳴 전남일보 교정부장)

심의위원회는 이상의 자문위원 5명과 17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편협이 보도용어통일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13회 매스컴 세미나 참가자 전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제13회 매스컴 세미나는 76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경주 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전국 일간신문, 통신, 방송의 주필, 논설위원, 편집·보도국 간부 및 행정부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는 “외래어 표기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이병호(李秉鎬) 문교부편수관과 박갑천(朴甲千)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발표하고, “국한문혼용 문제”를 김천명(金天明) 동양통신 교정부장이, “용어순화 문제”를 전영우(全英雨) 동아방송 부국장이 각각 발표, 보도용어 통일 작업의 필요성과 함께 시급함을 일깨웠다.

사실, 이때까지의 어문체계는 보도용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걸쳐 난맥이었다. 외래어 표기 실정은 1940년에 한글학회에서 제정, 각종 사전의 편찬 자료로 삼았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과 그 후 1959년에 문교부에서 교과서 개편을 위해 별도로 제정한 편수자료의 로마자 한글화표기법 등 두 개의 산맥으로 양립해 있었다. 게다가 신문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들이 적당히 양쪽 표기법을 참작 수정해서 사용한 절충안 등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사전과 교과서의 표기가 서로 다르고, 교과서와 각종 간행물의 표기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전과 사전, 교과서와 교과서, 신문과 신문들의 표기마저 제각기 달라 이를 바로잡는 게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편협은 우선 매스미디어의 주종을 이루는 신문에서만이라도 어떤 확고한 기준 밑에 표기의 통일을 꾀하여 일반사회에서의 혼란을 바로 잡아주자는 데 우선

목표를 두었다. 나아가 문교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통일안을 제정함으로써 교과서나 신문을 비롯한 모든 출판물의 표기에 있어 일사불란한 어문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어 그 심의작업에 손을 댔던 것이다.

76년 11월에 정식 발족한 심의위원회는 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사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실무위원회(9명)를 구성했다.

그 후 수차에 걸친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과의 합동회의 및 전체 심의회의를 거듭하면서 자체안의 확정을 추진한 결과, 이해 12월 마침내 외래어표기 기본세칙을 마련하여 편협 운영위원회와 신문협회측의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이 기본세칙은 한글학회의 외래어표기법 통일안을 배제하고 문교 당국의 편수자료 규정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모든 각급 학교의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물들이 편수자료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있는 만큼 외래어 표기의 시급한 범국가적 통일을 궁극 목적으로 설정한 이상 아무래도 그쪽을 택하는 편이 첩경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편협의 기본세칙 10개 조항이 편수자료의 모순점이나 미비점들을 철저히 수정하고 보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표기통일이라고 하는 지상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선 시급한 골조작업을 해놓는다는 데 그 뜻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78년 9월 말 현재까지 9차의 전체 심의위원회와 17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열었으며 격주제로 제2·4 화요일에는 실무소위원회를 열어 신문·통신의 외래어표기를 통일해 나갔다.

77년 3월 1일에는 기본세칙에 의한 보도용어집(외래어표기) 제1집을 발간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편협 회원사가 신문의 날을 기해 일제히 이를 따름으로써 우리나라 신문사상 처음으로 표기의 통일을 이룩했다. 제1집에는 세계의 국명 및 수도명, 각국의 지명, 미국의 주도명과 일본의 지명, 그리고 일반 용어와 스포츠 용어가 수록되었다.

한편 편협은 외래어표기의 통일을 위한 대정부건의서를 작성, 이해 4월 23일 정

부 요리에 전달하고 회장단이 직접 문교부장관과 면담해서 범국가적 통일시책을 펼 것을 약속 받았다.

그리고 78년 3월엔 세계의 인명과 일반 용어(추가분)를 수록한 보도용어집 제2집을 발간하는 동시에 제3차 사업으로 중국의 인명, 지명까지 포함된 보완합본의 제작에 나섰다.

실무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의 수임사항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중앙일보 서울신문 동양통신 합동통신)를 두어 격주제로 작업을 추진시킨 결과 이해 8월 15일까지의 제7차 회의에서 신문지상에 새로 등장한 인명 132, 지명 30, 일반 외래어 28 단어를 심의확정해서 각사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편협이 사정해서 통보한 보도용어(용어집 1, 2집과 추후 통보분)와 상치되는 외래어가 지면에 실렸을 때는 공문을 발송 시정을 촉구했다.

편협회장단은 77년 12월에 문교부장관이 경질되어 박찬현(朴贊鉉) 장관이 새로 부임하고, 또 78년 3월 1일자로 보도용어집 제2집을 새로 펴냄을 계기로 6월 7일 또다시 신임장관을 방문, 교과서용어와 신문용어의 통일을 위한 강력한 시책을 촉구했다.

그 결과 문교당국은 이해 7월과 8월에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와 표기분과를 각각 개편하고 언론계 대표들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언론계 대표로 편협심의위원인 박용규(朴容珪), 안태양(安泰陽), 이운표(李允杓) 세 위원과 자문위원인 박갑천(朴甲千), 정재도(鄭在道) 두 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교부국어심의회 표기분과위원회는 이해 9월 6일 편협안을 받아들여 외래어 표기에 장음을 쓰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해방 후 교과서와 보도기관 등이 각기 다르게 써오던 외래어 표기법이 33년 만에 통일을 보게 되었다.

한편 편협은 보도용어통일 작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심의위원회는 시사성 있는 새로운 용어들을 모아 격주로 사정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그때그때 신문 통신 각사에 배부하여 왔다.

본회의 보도용어통일 작업은 정부가 85년 12월 28일 새로 개정된 외래어 표기

법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할 것을 공포했다. 이로써 86년 1월 31일 제34회 정기 총회에서 신문제작에 있어서의 외래어표기를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보도용어 통일심의위원회의 외래어 표기 통일 심의는 마무리되었다.

## 2)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출범

1991년 9월 10일 오후 4시 편협 회의실에서 정부와 언론계 대표로 구성된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편협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정부에 제안해 만들어졌다. 앞서 편협 보도용어심의위원회는 5월 14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외래어 표기통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언론-정부 공동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짓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건의했었다. 이날 실무위원회 참석자는 이민우(李民羽 위원장 연합뉴스 심의위원) 김영환(金永煥 위원 서울신문 교열부장) 이건민(李建旼 위원 세계일보 부국장대우 교열부장) 방순용(方舜用 위원 중앙일보 교열부장) 이상갑(李相甲 위원 KBS보도본부 부국장대우) 박인석(朴仁錫 CBS 편집제작부장) 정복수(鄭福洙 위원 스포츠서울 교열기자회장) 등이다.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소련 러시아공화국의 도시 레닌그라드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적기로 하는 등 이름이 바뀐 일부 국명과 도시명의 새 한글표기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버마의 새 국명을 ‘미얀마’ 수도명은(구 랑군)은 ‘양곤’으로 표기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름인 몽고(蒙古)는 몽고와 함께 ‘몽골’이란 표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은 언론과 정부기관은 물론 1992학년도부터는 각종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도 이 표기에 따르게 됐다.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위원장=안병희(安秉禧 국립국어연구원장 서울대학교수) △부위원장=이민우(李民羽 편협 보도용어심의위원장 연합통신 심의위원) △위원=김완진(金完鎭 서울대학교수) 남기심(南基心 연세대학교수) 임홍빈(任洪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1부장 서울대학교수) 김광인(金光仁 문화부 어문출판국장) 정용섭(鄭濬燮 교육부 교원연구원) 최상목(崔相穆 동아일보 교열부장) 정복수(鄭福洙 교열기자회대표 스포츠서울교열부장) 김상주(한국어연구회간사) △연구간사=김세중(金世中 국립국어연구원 연구1부연구원) △사무간사=이상근(李相根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사무국장)